



교 시
지 평 자
리 화 유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발행소: 전주시 효자동 3가 1200번지
전주대신문사
전화: 편집국 220-2442
운영실 220-2441

발행인겸 편집인 이종익 / 주간 원한식 / 편집국장 최경주 (1986년 8월 27일 분공부 등록 다-410)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96년 9월 9일 (월요일) [주간] (제 495 호) 1

지/면/안/내

2 **조각공원 실태보고**
학교 앞 '송암조각공원'이 심한 통상을 입고 있다. '부수고 고치자'는 학살원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온 문화공간이 아닌 버려진 뒷골목의 모습이다. 이러한 조각공원의 모습과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3 **새 이념교육의 허와실**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 21일 초·중·고의 이념 교육 교과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이 새이념 교육이 내세우는 반공이대목포기의 실제에 대해 알아본다.

4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학**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학을 진리탐구라는 보편적 임무에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를 위한 인간교육과 교육제도 개혁들이 따라야 한다.

5 **대학인의 윤리-독자의 소리**
이시대의 청소년들은 공부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예절교육을 잘 받지 못했다. 이런 시대에는 학문보다 작은 예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6 **신라의 숨겨진 전하는 호반의 금석**
호반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외일석각'과 비갈 '수월화상 능기보살탑비'를 통해 선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본다.



7 **학생회 주최 강좌 금지**
지난 29일 '전체교수 회의'에서 학생회 모던 강좌개설을 금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학복위와 학교측이 회의를 거쳐 합의했다.

8 **러시아 여행유감**
모스크바 시내 한 복판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와 문인들의 묘가 조각공원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알 린

등록금 최종 등록기간

9월 12일~13일

상업은행 전국지점, 전주대 출장소

학교앞 조각공원 살리자

질서의식 실종...학교·학생회 대책 서둘러야



조각공원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리대학 앞 '송암조각공원'이 심한 통상을 입고 있다. 지난 92년에 송암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주 정영수(송암약국 약사)씨가 '대학의 건전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개인 재산 2억 여원을 들여 조성한 조각공원이 그동안 학생들의 질서외의 실종과 공원파괴행위, 무관심으로 인해 무법천지가 되어 결국 폐허가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처음 공원조성 당시 조지품 2억여 원을 구입하여 설치하고 무대·분수시설, 깔끔하게 조성된 잔디밭, 벤치등으로 학생들

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풍아린 야외공간으로 있었고 결혼식도 자주 치러지기도 하여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문화유식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이 정책적으로 고려해 조성한 공원이 아니고 한 개인이 '보람'을 얻고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조성한 공원이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파괴행위 및 일탈행위로 인해 그동안 쌓아왔던 조각공원에 대한 설립자의 애정이 송두리째 꺾이고 말았다.

(2면에 계속)

무관잡기

▲우리나라에는 '홍부와 놀부'라는 고대소설이 하나 있다. 홍부는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이 소설의 내용을 우리는 의외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홍부보다 놀부에게 더 배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놀부가 각광받는 이유는 '홍부처럼 살다가 '놀부'가 된다는 사설이 이따기나를 따르며 느껴왔기 때문이다. 또 비록 욕심이 파멸지라도 생활력 측면에서 강한 집착을 보이는 놀부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홍부와 같이 너무나 착한 심정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듯 하다. 등록금이 해마다 올라도 군소리 없이 내고 학교측이 다른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도 우리는 잘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밖의 놀부는 다른 대학가 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유용

(?)하게 이용한다. 오히려 OO종류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통념 없이 묵묵히 지갑에서 우리학교 대학생들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유성폭주를 책임진다는 학생복지위원회가 학교내·외적으로 물가인상 억제에 더욱 힘을 써준다면 더 없이 좋으련만 대충적인 힘이 이르는 바가 무척 아쉬워 보인다. 학복위의 힘이 약하다 보니 몇년동안 '시답' 값을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대폭적으로 물가

학생은 '봉'인가!

인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번엔 학복위가 커피판매업자의 일회적 가격인상에 대해 불만을 품을 발일 때 우리는 모두 동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갑자기 오르는 커피값에 대해 일부는 이용하기도 했지만 향반을 향반이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은 물가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하겠다. 그러나 학복위의 책임을 묻기 전에 우

보도단신

친회두박사 무료 외과진료

전주병원과 지정병원 계약체결 이후 우리대학에서 첫 무료진료가 지난 5일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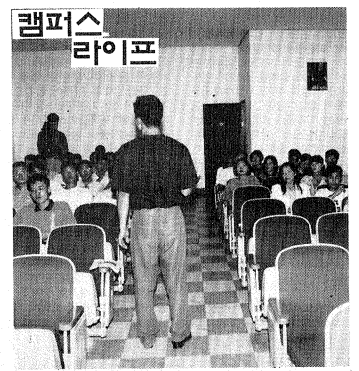
학생회관 2층 의무실에서 가진 이날 진료는 '안과'과목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전주병원 안과전문의 유인상 이사장이 진료를 맡았다.

각종 안질환과 시력교정 등에 대해 상담한 이번 진료에는 모두 32명의 학생들이 찾아와 문의하였으며 담당의사는 증상을 듣고 처방전을 작성해 주거나 수술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해 주기도 하였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게 될 무료 진료계획을 보면 우선 9월에는 12일 외과진료에 친회두 병원장이 20일에는 비뇨기과에 김호성 진료부장이 방문해 진료하게 될 방침이며 시중에 의무실에 진료신청을 하거나 당일 접수하면 선착순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19일(목)에 실시하게 될 외과과목에는 각종외상, 함몰질환, 화상, 종양, 수술레비 전후관리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재부)



지난 6일(목) 예정됐던 제1차 전체학생대표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오는 9일로 연기됐다. (사진은 음악감상실) (사진:글·사진부)

수습기자 모집

미래에 도전하는 새내기를 찾습니다

나만의 '전공 선택'

한정된 커리큘럼 안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없다!!

성적표면 기재되지 않지만 인생 이력서엔 커다란 느낌표가 남을 생활들.

조금은 바쁜, 조금은 힘든 일상에서 숨겨졌던 진정한 '나'를 찾아보자

바로 이곳 대학신문사에서...

글솜씨 보다는 열정있는 96학번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학생회관 3층으로 지금 발걸음을 돌려주세요.



'뿌리'를 이어가는 새내기 모집

제 28기 수습기자

- ▶ 모집대상 : 96학번 00명
- ▶ 모집부서 : 취재, 사진, 만화 (컷)
- ▶ 모집및 전형일시 :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 ▶ 전형방법 : 면접
- ▶ 원서접수 및 전형장소 : 전주대 신문사 편집국 (학생회관 3층 진리관 앞)



전주대신문사

‘학생 지도방안’ 구체화 하자

한층된 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대학문화’의 육성과 ‘엄정한 학생지도체제’의 정비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학사인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우리 전주대학교 이곳에 있는 전담대와 조전대가 전공과목 뿐만 아니라 외국어, 컴퓨터, 봉사실적 우수자에 게 그 자질을 보증하는 ‘학사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인증제 ‘학사인증제’가 새삼스러운 제도는 아니다. 이화여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이미 학생들의 취업향상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컴퓨터 우수자, 토론을 비롯한 각종 경시대회 우수자를 대상으로 성적에 이를 표기하는 것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별도 강의를 개설해서 ‘인증학생’을 주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다른 대학이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따 라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실시하는 F. A 제도처럼 나름대로 우리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학사관리방안을 개발해서 실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

제로 이번 학기에도 토익 경시대회를 실시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다. 다른 대학에서 먼저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면학분위기를 위한 방안이라면 서둘러 도입한다고 해도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 그렇기 지난 8월 29일에 ‘학생지도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교수회의에서 학생지도의 주무부서의 장인 학생처장이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학생 행사 중 건전한 활동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학-예-체 활동과 경시대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제 우리가 당부하는 것은 그러한 방안들을 실제의 학사관리에 적극 적용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방안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할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걱정

미니 대학들이 쏟아진다

아동이나 유아보육기관을 다루는 대학, 자동차 공학을 집중으로 연구하는 대학, 심지어는 세네나 호도문제만 을 가르치는 미니대학들이 설립한다는 보도가 우리를 얼떨떨하게 만든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부터 새로 마련된 대학설립문 영규정에 따라 대학이나 대학원만 있는 대학원대학을 만들 학교법인을 허가하는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난 달 말까지 개인이나 단체가 모두 62개의 대학법인 설립신청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에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99학년도에 걸쳐 모두 1만4백13명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소규모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양하게 인정하려는 것은 이제까지 내세운 지원한 일반 종합대학교보다 규모는 작더라도 신설되는 교육과정은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대학 설립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본래 교육이라는 게 수요자인 학생을 위한 것이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에게 집중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미니대학이 많아지면 그만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점은 미니대학의 설립은 단순한 설립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까지 말로만 나왔던 대학의 무한경쟁시대가 구체화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대학의 설립이 부분법(98년)로 또는 완전 자유화(99년 이후)되면 대학간의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정직을 바라 바라 치라는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 남는 길은 그저 다짜 대학보다 좋은 교육역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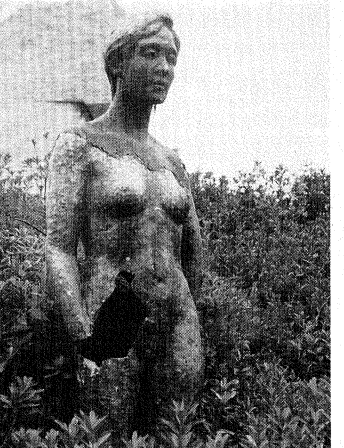
(1면에서 이어짐)

공원 훼손행위 너무 심해

“처음에는 훼손당해도 비로 수리를 했지만 그러한 일이 계속되고 심지어 파손행위를 발견해 주의문을 걸어 두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는 비탈에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하여 이제 더 이상의 투자가 보수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황영수씨는 “이제는 지쳤다”고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은 조각공원 부지에 대하여 ‘물류센터’란 경제개발을 받고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시설도 전환하는게 차라리 마땅치 않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쌓여왔던 고통을 내비쳤다. 우리대학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위환경이 파손됨으로써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낳고 말았다.

조각·시설을 파괴 짓자 조각공원에서 벌어졌던 구체적인

파괴·일방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각을 및 시설물을 파괴하는 행위, 조각공원 내부에서 음주 후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연꽃에 사람을 매달리는 행위, 공원 주변에 대소변을 보는 행위, 잔디에 불을 지르는 행위, 연꽃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 오물투척행위 등 너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법천지’를 이루어 간조조각 조각우야 할 기본적인 질서외적조차 실종된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설립 당시 20여명의 조각작품을 기증해 놓았으나 파손될 수 있는 재질로 된 작품은 모조리 다 파괴되어 버렸다. 이는 비록 한 개인이 설립한 공원이지만 특정인에 게 제한 두지 않고 대학사회에 회사했다는 점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또한 공원에 설치되어 있었던 조명은 밤에 오해로부터 깨지기 시작했으며 수시로 교체해 줘도 일주일마다 하고 또 다시 깨지는



자판기 커피가격 차별화... 사실상 인상

우리대학 자판기 커피 판매가격이 기존 1백원으로, 1백원과 1백50원으로 차별화되었으나 1백원의 커피가 실제 가격이 1백50원이기 때문이었다. 1백원의 커피가 1백50원인 이유는 커피의 원두가 2월 2일부터 1백50원인 커피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커피의 원두가 1백50원인 커피를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4월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이번 커피가격 인상은 자판기 운영업체인 고암실업(대표 : 김태희)이 원두구매 가격인상과 입급상승등의 이유로 들어 올해 2월부터 인상요구를 여러차례 학교와 학생대표와의 협의 끝에 지난 4월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그러나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 주정훈)에서는 당초 협의내용과 다르다. 이 경우 원두구매 가격인상 5원 한도 분배율을 보 이기도 하였으나 학부의 요구를 일부에서 수용함에 따라 일원 커피는 1백원으로 조정하고 특수음료는 제외, 고급커피를 1백50

업주 “학교에 연간 3천5백만원 지불해 인상 불가피..”

원으로 하는데 합의를 보고 불매운동을 철회하였다. 고암실업 김태희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대학에서 커피가격이 1백원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그동안 커피가격이 많이 인상돼 도저히 1백원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 지난 2월부터 1백50원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학부에서는 인상시기를 2학기로 미루어 왔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1백원 판매 커피의 양을 줄이는 하지만 집에 있어서는 현재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대는 아직까지 인상할 계획없이 1백원으로 판매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대학의 실질 인상요인에 대하여 김태희 대표는 “전담대는 자판기 운영에 대한 임대료나 전기료 등의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전담대는 임대료, 전기료, 쓰레기처리비용 등 연간 학교측에 지불하는 금액이 3천5백만원에 이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내년 수지가 맞지 않아 1백원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위원회는 “우리대학직원 임대료나 전기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임대료에 부담비용까지 업체에 부담시키고 있어 업체가 그 비용을 감당하다 보면 결국 학생들이게 비싼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자판기 커피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고암실업측은 “입석수익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환원할 의사가 있으며 캔 음료수 자판기에 대해서는 인지를 계획없이”를 시사했다. (취재부)



했다. 학생들에게 유지시켜주기 등 고도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 을까요? 이미 ‘요운 점, 미운 점’ 이 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원을 살리기 위한 방법

이제,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고 조각공원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무 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학교측과 학생과 모두는 대표적 책임을 지고 조각공원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교와 조각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각작품을 새로 기증하는 방안, 자치위원회를 이용해 학생들의 파 손행위를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방 안, 학교사랑하기 운동에 조각공원 내부까지 정리하는 방안 등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 뜻밖의 문화공간을 선택한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 4년 2개월동안 우리 학생들의 문화적 의식 수준과 질서외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 다. (조은영 기자)

앞서서 달리는 사람
힘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주) 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고려

▲출사 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

독자의 소리

독자칼럼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의 세상은 10년이 아니요, 한달이 멀다하고 변해가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도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과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대학들도 갖가지 변화하였다. 일들은 변해가고 있다. 입시제도를 바꾼다, 교과과정을 바꾼다, 학위제도를 바꾼다, 교육 방법을 바꾼다, 교육자를 바꾼다. 그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세상이 구태연한 과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발전적으로 변화에 이끌려 주어야 할 것이요, 요구하는 데응답하여 변하여 성장하는 것은 비합리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교인이나 입학하여 세워진 학교들은 먼저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가 세워진 근본목적과 학교가 세워진 후 지금까지 누구의 은혜를 입었는지 결코 의지할 것은 아니다. 세워진 목적지 여하에 따라 그 길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기독교교인이 입학한 교육이념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우주자연의 관계로 정립하고 그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의 존재가치를 받들며 정당한 기독교정신인 박애·봉사·희생·순종의 사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정신 심어주는 교육

이같은 사상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질려면 먼저 교육관이, 행정관이, 모두가 기독교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통에서, 언어에서, 생활에서, 모든면에서 기독교정신 좋은 향기를 풍겨 주위에의 본되고 주창하여야 한다.

이제는 기독교인이고 자처하는 모든 이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정신으로 무장하기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워서 알았으면 주지하고 행할 것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인간 생활이 주변에 작은 빛이되어 많은 사람에게 밝혀주고 밝아 되는 신의 필요함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 체험하시는 하나님이나 그속에 계시있는 모든 영이 임하신 계층을 세우고 추진하고 실현하고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는 이제의 인간의 전체주, 속 입수에서 떠나 무조건 창조자와 정령, 성령 하시는 능력자로서 하나님께 감동과 의지하여야 할 것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께 조 진할 모두가 감동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동하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우리대학의 본 빛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운석(교육실. 행정과장)

◇ 학군후보생이 총장님께 드리는 편지

문무대 훈련중 총장 방문 자부심 심어줘

총장님께,

어느덧 그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은 좋으시지요?

발우초 학생들의 편지를 도록 해주기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께 ROT 후보생으로써 인사드립니다.

저는 4학년 학군후보생으로써 그동안 찬찬히 생각하며 나 자신과 학교의 면면을 지키기위해 노력하는 수학 교육과 학생입니다.

3학년때 느꼈던 인공의 이미지와 4학년 지금 느끼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우선 ROTC 4학년 후보생들에게 다가오는 취업의 관과 앞으로의 대학에 대해 고민과 걱정은 마음없이 생각해 다가옵니다.

물론서 총장님께 보냈던 총장님의 너그러운 미소를 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학교 안에서

며 여까지 문제가 있을 줄 알지만

다만 특히 ROTC를 지원하는 총장

님의 성정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마움의 표

현을 이렇게 바래 할 수 없었으면

안되었습니다.

우선한 여름날 보다 나은 절기로

회기 위해 애쓰는 문무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총장

님의 방문은 더욱더 전후에 14학

군단을 빛내는 일일이고 4학년 후

보생들에게 커리큘럼 자부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무사히 훈련을 마친

후에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부터 해부

는 내 자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연히 서울대학교와 같은 따

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좋

은 경험이 되었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의

방문해 말씀하셨듯이 서울대 ROTC

후보생들을 우리학교에 초대해주

는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위해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저는 절정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초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 대학생활의 의미

인간관계 대학생활에서 중요해

95년 3월에 시작한 대학생활이

어느덧 2년째 접어들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이란 수시로 변

화되는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대학생활이 무엇인지에

는 말이 많아져 왔다. 대부분의 신

생이 학문적인 입장을 버리고 노

력하지 않게 되었다.

“성공은 왜 이루어지지 하는

가?”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대

답없이 분단 상태 보다도 더 좋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무의 등의 이유

로 성공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더 흥미의 필요

성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우의 입장을 바꾸고

통합된 생각하자면, 지금과 같은

정국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를

변경할 인구에 새로운 비전을 내

놓기 위해서 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

한가? 정부의 민중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는 커녕 정부부처간의

분열 정책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도 해

결하지 못한 지역간의 성숙이나

분쟁조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의 의미는 무엇인

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

며 한 민족공동체를 확립하는데

있을 것이다.

각 언론사의 왜곡 보도는 너무

나 무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

었고, 무조건 좌경 세력으로부터

올라 부르는 정황은 하나도 없

는 정황을 찾아 볼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조선, 정치적으로 이념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자유민주, 객관

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

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한

편에서 남쪽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발전이 있기를 바랄 뿐

이다.

(사상과 생활의 자유 행함과

학생운동단체를 위한 전

주대 민주 학생회)

이치훈(영어영문·2)

◇ 땅에 떨어진 대학인의 윤리

학문보다 예(禮)실천 선행해야

“요즘 아이들 참 버릇없다”라는

말을 우린 자주 듣는다. 과연 이

‘아이들’이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를 생각하니까?

비밀진 도사관 회담실에서 한 어

학살이 현재까지 기록한 실증은 아

주어내게 생겼다는 것도 아랑

곳까지 않고 화살알과 화살촉이

아주머니 쪽으로 던져진 것이었다.

보내다 아주머니께 “학살 예기

체나 사살과 저쪽 유적지이다 버려

진 인연?” 한미타 하고 쓰러져

죽음을 받고 나가는 아주머니

귀에 “보내고 일하면서 달란한 거

지, 아들이며 재수없어 하고 아무

것도 없게 두루대는 그 여학생을

내 친대이었다.

정말 예쁜 생김새 여학생.

‘아! 과연 그 친구는 아주머니

가 자신의 어머니였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 자식이 부끄러워하지는 않겠

다. 여학생 친구나 큰 재물이

무엇한 그 아주머니도 기생같이

들었다 아니라 어머니로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내다 아주머니께 “학살 예기

체나 사살과 저쪽 유적지이다 버려

진 인연?” 한미타 하고 쓰러져

죽음을 받고 나가는 아주머니

귀에 “보내고 일하면서 달란한 거

지, 아들이며 재수없어 하고 아무

것도 없게 두루대는 그 여학생을

씩어가는 우리의 윤리에 충격을 받

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한

그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가가 되고 나날 문제인 것 같다.

우리 왜 대학에 다니는가? 단순

히 학업 위해서 경제적으로 풍족

하게 살려는 것이 목적인가? 배움

은 사명이 되기 위한 과정에 지나

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는 우리의 윤리를 생각해 보기

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경하(국어교육·2)

현정권 마녀사냥-

민주주의 시대 역행하는 구시대적 산물

있는 이를 또한 현정권임을 우리는

연세대 사건을 통해서 똑똑히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정권의 통일논

의는 본질적인 반대이다. 하지만

현정권의 통일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중

하나에 포함되어 존중되어야 하지

가 누구도 폭력적으로 무시하고

진압할 권리는 없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현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

리와 대립을 지키지 않고 폭력적

으로 현정권을 진압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어떤 사

건의 불합리한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진압하는 가장 위

험적인 증명인 것이다.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현정권은 민주주의의

재하는 한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2007년 12월 18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로 10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여기

서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에서

총선거구제를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서



호남의 금석

(2) 신라의 숨결 전해오는 호남의 금석

백제요청이라 하는, 지리산 지역을 따라 열오남의 요충지로 알려진 남의 이르면 호남 금석문의 비갈루(兩伽藍)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실상사의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살탑비(深源寺 秀澈和尚佛舍利塔)'가 있고, 다시 산줄기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려대장경에 못지 않은 화엄사 화엄석경(華嚴石經)과 관련된 유물이 많이 전해들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숨결을 새겨두고 있다.

추정 연대인 하지만 호남의 현존 최초 금석문인 신라 문무왕 때 석각된 화엄사 '화엄석경'의 원형은 현재 전라남도 구례군 미산면 환진리 화엄사에 소장되어 있고 1972년 1월 29일 지방유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되어 현재 약 1천여점의 파편이 남아 있으며 재질은 화강석이다.

'화엄석경'이란 '화엄경'을 새긴 석경을 말하며 '화엄경'의 원형은 '대방광화엄경(大方廣華嚴經)'이다. 우리나라에 신라의 조각술사 이 절을 가져와 처음 조각한 이후 유묘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절이 화엄사상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화엄의 의상대사가 이 절을 연구하여 화엄종을 창종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현재 전해 내려오는 화엄경가본대가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화엄석경'이다.

그러나 '화엄석경'제작자가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아 여러 추정들을 하며 '표'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화엄석경'의 석에 대하여 '조선불교 통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리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납석(蠟石)이며 원래는 붉은 침색이었는데 그 중에는 약간 붉은 연쇄색(靑瓦色)을 띠고 있다 하며, 일출하는 일출해면의 변화로 그 색깔이 변색된 것이다(其石質, 則軟滑之蠟石, 係是蠟質 山

中之所產, 帶微青色, 而其中麗輝赤燦瓦色 中, 有靑者白 此則麗輝燦火時, 燦燦 色 者云.)

전하는 말에 석경의 돌은 경주에서 가져온 청옥이라 하지만 화엄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납석으로 본래 연쇄색을 띠고 있다고 일설에는 장경전 뒤에 조각한 것을 지어 석경을 보관해 오다가 일출해면의 변화로 화강색, 일출 홍색, 양층 석 등으로 변색되었다고 한다.

석경의 글자에 대해서 '조선불교통사'에서는 석경의 글씨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연필자들로써서, 모두 정교한 필자를

화엄석경 화엄경은 바위에 새긴 경문

'연기스님' 제작설에 김생·정강양 추정도

구하여졌고, 서자 솜씨도 뛰어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석경의 서체는 과선 가운데 단정된 해서로 쓰여 있다. 필획은 한 사람의 필적이 아니지만 대체로 화엄의 서체를 띠고 있다. 필획이 정교하다. 서법으로 보나 각예로 보나 볼 때 모두 조급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옥빛에서 황금빛으로 변화된 장엄한 '화엄석경'에서, 부처신 신라 의상과 미소와 같은 미련의 미와 지혜에 풍靡하는 굳건한 필자를 보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깊어야 할 것이다.

그 글자의 지름은 5분(15mm)이며, 해서로 잘 양자 필법을 쓰고 있다. '화엄경'의 많은 글자 중에서 '간담히'에는 양자 겨울 수도 없이 연필자들의 가능성을 전

혀 배제할 수 없고, 파편에 나타난 비를 실감할 것임이 점에서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화엄사의 '화엄석경'은 그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글씨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지만 1천년 넘는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에 그들하고 조각조각 파편이 되어 남아있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의식에 나아갔고 우리의 자신 또한 얼마나 무관심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한심스럽다기 보다는 먼저 얼굴이 왜곡된다. 그러나 신라 신인들의 숨결에는 여

전히 고려대장경에 뒤지지 않은 문화유산을 통하여 미비하게나마 한국의 서사와 조각에 길이 남을 불교의 대사를 소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에 대한 복원을 시도해 보지 않은 지금까지는 단정 짓기 어려운 일이다. 실물 이외의 복원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원형 복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옥빛에서 황금빛으로 변화된 장엄한 '화엄석경'에서, 부처신 신라 의상과 미소와 같은 미련의 미와 지혜에 풍靡하는 굳건한 필자를 보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깊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석문으로서 현존 최초의 탑비는 전라남도 남양군 신내면 실상사 실상사 극락전 서면에 위치한 불보 계묘호 수철화상능가보살탑비이다. 수철화상은 실상

사 개산초 종직(洪妙)극락 계승한 실상신라의 제2대조이다.

그러나 일찍이 말하면, '수철화상능가보살탑비'보다 그의 스승 홍척극사의 '증각대사 응묘탑비(證覺大師 應夢塔碑)'가 먼저 건립되었으리라 본다.

수철화상(817~893)은 홍척극사의 제자라는 점에서 볼 때, 증각대사의 부도당에 이 먼저 세워졌을리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상사 극락전 앞에 서면 그 언덕에 없었던 것이 일 수 없는 비신(碑身)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귀부(龜趺) 위에 이주(趾頭)만이 남아있어 수철화상탑비까지 남겨지는 불보 39호 '증각대사 응묘탑비'가 있다. 이주의 앞면 중앙에는 응묘탑비라는 전액(篆額)이 새겨져 있어 그것이 '증각대사 응묘탑비'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응묘탑비의 귀부는 호반풍화작용으로 세부 조각을 발달시켜 어렵지만 거북의 머리를 용의 머리처럼 추상화하여 만들지 않고 멧발 거북이 머리와 원형 그대로를 충실하게 되었으며, 이주의 조형도 경주 '대장부열왕탑비'의 계열에 속하는 우수한 작품으로 한국 석비의 고전적 형태를 잘 나타낸 9세기 비이다.

이처럼 응묘탑비의 이수가 무일왕릉의 비와 같은 것은 홍척극사의 예우가 얼마나 높았을지 짐작할 수 있는 복원된 실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비우에 전액이 없었으므로 수철화상의 탑비 등을 통하여 그의 생애가 간략하게 전해 올뿐이다. 이 때문에 홍척극사의 탑비는 문헌에서 사라지고 그 대신 수철화상의 탑비가 호남 최고의 탑비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실상사 극락전 서면에 불보 33호로 지정된 정강양 수철화상의 부도탑비이고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7~8m의 거리, 옛



(수철화상의 스승 홍척극사의 기념비인 '증각대사 응묘탑비'의 모습. 경주 '대장부열왕탑비' 모형을 해 당시 홍척극사에 대한 숭혼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후 5나루 그늘 아래 거무척칙한 이끼와 비비람에 한번 제 무심으로 서있는 수철화상의 탑비가 있다. 그의 높이는 282cm, 비신은 112x21x170cm의 크기이다. 이수에는 구름 속에 반룡(蜃龍) 두 마리가 서로 머우를 가지고 놀고 있으며 그 중앙에는 '능가보살탑비(楞伽加波塔碑)'라는 전액이 음각되어 있는데 조각수법이 형식적인 경향이 뚜렷하다. 이 비의 의상상의 특징은 일방적인 '탑비'와 달리 '귀부' 대신, '간담' 구름 세간 장 방형 대좌 위에 비를 세웠다. 그리고 그 비의 좌대에는 함직한 복면(伏魔)을 두루 놓았다.

원문 탑비는 속궁 40년 갑오(1714)에 홍건군이 그 때의 비문으로서는 너무 마멸과 손상이 심한 비이지만 해서로 구양순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탑비에 나타난 문자를 통하여 수철화상에 대해 나

고.....하루에 뜻을 돌, 15세 남짓되었을 때 불도를 배우려고 생각했다.(幼亡年, ...年輪志, 學佛圖願.)

"술가하여 동원정 복천사를 찾아가 완법 큰스승에게 구족계를 받았다.(出至東原京 福泉寺, 受具于德法大僧.)"

"불야와 증상을 교화하니.....고교호 아무 말이 없었으나 찾는 이 많아서 같이 생겨난 정도였다.(蓮化衆生, ...以微言而成.)"

"정강양은.....어는 날 팔각정에 스님을 초청하여 교화고 증종의 차이점을 물었다.왕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깨달은 바 있었다.(獻心大王, ...一日八角, 誦教稱阿彌, ...真心悅.)"

"경복 2년(893) 5월 4일, 재자들을 불러 유언을 내렸다.

"매기 되었다. 나는 떠나거나 너희들을 배로 게으리 말라.".....말을 미치고 열반하

능가보살탑비 수철화상 열반후 유안 판독복가

조선때 재건...마멸심해 육안 판독복가

악한다는 것은 거의 절망적이다. 비문을 읽고 쓴 사람, 그리고 언제 누가 세웠는지 모두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된 비문에 의하면, '조지(峯)의 서(書) 및 전(轉)을 쓴 자에 라 하여 찬자 및 서자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의 비문을 밝혀하여 주요 단락을 정리하면 수철화상에 대한 대개는 파악할 수 있다.

"그의 뜻은 무상정각(無上正覺)을 구하는 데 있었다. 이 일 보면 그의 마음은 유주보다도 더 뜨겁고 항쟁심은 예전에 비해 가차 없이 수 없는 지만 허했다.(志求無上, 熱心火更, 踴躍修古昔乎!)"

"조선 건국의 높은 집안으로 경사는 스님의 몸에게기 미쳤다.(興國煥發, 慶餘法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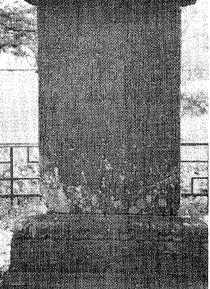
"그의 입도는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의

니, 향년 77이요 법랍 58이다(廣福二年 廣四, 召其徒, ○稱至矣, 善○行, 佛子弟, ...言已化去, 享壽七十七, 臘夏五十八.)"고 하였다.

이상의 비문에 본 비와 같이 수철화상은 신라의 귀족 계층의 출신이긴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머지 불교에 귀의하였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 후 수철화상은 구족계를 받은 뒤, 중국의 유학승이자 실상사의 개산조인 홍척극사의 제자로 그의 법통을 계승하여 실상사문의 제2조가 되어 많은 신도와 유학까지도 그를 존경해 미지않았다.

893년, 정강양 구에 열반한 스님은 '능가보살(楞伽加波)'이라는 담호를 세우고 끝 그 후에 부도와 탑비가 세워질 것으로 추정 하여 현존 호남 최초의 탑비로 기록된 것이다. (문화부



(호남 현존 금석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인 '수철화상 능가보살탑비'의 모습. 높고 282cm, 비신 112x21x170cm 크기이지만 마멸이 심해 육안판독이 어렵다.)

추정제작자	관련 근거 및 내용	비문 및 의문점
연기스님 (應契)	'신중 통극여지승탑'(권40)에서는 '구례화엄사는 지리산 기술에 있는데, 연대를 알 수 없는 연기스님이 화엄사를 창건하였다. 그중 한 반방사의 사반면에 흙을 바르지 않고 모두 청석을 사용하 고 그 위에다가 '화엄경'을 석각하였다. 그후 오랜 세월이 흘러 석벽이 부서지면서 경원문자가 파괴되어 판독할 수 없다.'	• 동명인원일 가능성: 홍룡사 연기스님이 화엄사 창건후 연기스님과 동일인물일 까? • 화엄경사경 발견자 화엄사가 아닌 경주에 연기스님을 인도승으로 보았으리 • 홍룡사 연기스님을 화엄사 창건후 연기스님으로 잘못 보았을 오류의 가능성.
인도승 연기조사 (緣起師)	1936년에 전술된 '대방광사사적'에서는 연기승을 인도승로 연기조사로 기록. '구례속지'에서는 진흥왕 4년(543) 연기조사가 화엄사 건립, 선덕왕대 지각을 조성, 문무왕대 의상대사가 사자殿을 건립.	• 사적이 아님
의상대사	구례읍지 '廣城公'에서 석경은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시찰을 전고의 도량으로 삼으면서 문무왕대에 향명을 받아 화엄사에 3층으로된 丈文殿을 건립하고 그 아래를 석각 '화엄경'으로 불렀다고 되어 있다.	• 797년에 번역된 정원본 사십행문이 의상대사에 의해서 석각될 수 없음. 현존 화엄사 석조물들이 모두 8C후원에서 9C에 걸쳐 조성.
정강양	'화엄경사원문'에 의하면 신라원강양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왕의 아유 정강양이 화엄사에 명하여 보의뢰본 60권, 권원본 40권을 서사하여 석경으로 조성	• 화엄사는 화엄절화를 중심으로 한 화엄도량이라는 점에서 원강양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공덕'역이리라 보다는 화엄사상을 담으려 하였을것.
최치원	'사신비명'에서인 '정개사' '진관선사'의 글씨와 흡사	• 근거미약
김 생	'한국인명대사전'에서 주장, 전래설화	• 필적대조하면 미흡함을

전주대학교 박물관 문화역사기행

"천불천탑의 신비를 찾아서"

● 참가 요령 ●

- ◆인 원: 70명(차량이 한정된 관계로 신청순으로 접수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996년 10월 9일(목요일, 개천절)
(당일 시청 앞에서 08시에 출발하며, 출발전에 답사안내서 배부 및 답사자 소개가 있으니 07시4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귀가.
- ◆참 가 비: 1인당 25,000원(중식, 간식, 기념품 제공)
- ◆신청기간: 1996년 9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전주대학교 박물관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승금권 인적사항을 통보. (온라인 번호: 우체국 402008-0112123-12 에금주: 전주대학교 박물관)
- ◆코 스: 화순 백리리 민불-생불사-조경동 적려유허지-운주사-백제 불교문화사 (코스는 사전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본 박물관에서는 특히 기록단위의 참여를 기쁘게 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어 우리 문화의 뿌리를 바로 깨닫는 바를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의 친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박물관(전화 220-2158~9)으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생회 특강, 학교측과 공동관리

학복위

강사섭외 — 수강료 접수

학교

학생회 주최로 개설되는 모든 강좌가 앞으로는 학교측과의 협의에 따라 공동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 29일 전리관에서 열린 '96년도 2학기 전제교수회의'에서 학생회와 각종 강좌개설을 앞으로 금지한다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 주종률·이부동제 4)와 학교측이 회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난 3일 학복위의 주관으로 개강된 '96 가을 특강'과 학복위에서 진행하던 '특강 강좌'와 협의에 의해 일부결정된 학교측에 이양할 예정인 언어교육원에서 강좌를 개설할 접수를 받는다.

이런 합의는 학교측의 특강사업을 언어교육원으로 일괄하고 할 것을 언급하고 이번 강좌를 폐쇄할 방침을 보이자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측과 맞서싸워 철저한 것이다.

주종을 위원장은 "학복위의 임무

는 학생 복지를 위한 것인데 교육도 복지의 한 부분이라며 학교와 정부의 이런 규제는 학생들이 좋은 점과 충분한 입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자유와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학생회의 자금원은 막기위해 이번 방침을 설정했는데 우리는 강좌개설을 통해 학생회의 자금을 조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는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특강개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회는 "학교시설을 이 용해 근방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사용할 수만 바질 것"이라며 "수업이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학교가 기부하는 수업료의 문제는 다른과가 전적으로 직접 관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방침은 학교측의 복지사업을 막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개설되는 강좌는 학복위가 학생들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 학생회에 강사 및 강좌를 추천하면 양자간의 토의를 거쳐 검토하여 수 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학 학생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학생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고 말했다. 이번엔 진행중인 '96 가을 특강'은 학복위가 미리 준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에서 언어교육원 제정으로 접수를 받고 학교인 대한사람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그러나 접수가 마무리 되면 학생회측에서 받은 접수비는 언어교육원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좌내용이 바뀐사항은 없다. 이와 같은 협의에 대해 학복위는 "강의실 폐쇄, 강사규제, 수강증등의 문제도 학교측과 마찰을 빚는다는 강경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강의는 4명의 강사로 구성된 총 8개 강좌로써 '교육학 특강'이 신설되었다. 'The Special English Course', '시사 TOEIC', '김정연의 '아카데미' TOEFL', '안사사 TOEIC', '공인어의 'PRS 종합 기술-구조영어', '한서공통학원 강사인 안원철의 '교과용어 특강'이 결원반에 개설되어 있다. 김정연의 '인강용 TOEFL-TEST'와 공인어의 '김정연 PRS TOEIC' 강좌를 주원반으로 개설하였다. 접수기간은 9월 14일까지로 강의는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 이와 관련해 주종률위원장은 "교육학 특강"은 인문교사들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설한 것으로 방향과 대도시의 학원까지가 강의 듣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학은 언어교육원의 제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과 협의해 언어교육원의 전담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종률위원장은 "교육학 특강"은 인문교사들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신설한 것으로 방향과 대도시의 학원까지가 강의 듣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진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학은 언어교육원의 제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범대 학생과 협의해 언어교육원의 전담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블문과 학술제 열려

프랑스 문화 소개

불어블문학과 학생회(회장:오영대 31)에서는 제16회 학술제 'ECHO DE PARIS(파리의 메아리)'를 지난 6일 예매하는 중점행사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블문인이 하나하나씩의 취지와는 프랑스의 민요와 상술, 사냥, 합창 등을 내용으로 하며 프랑스의 문화와 소개하는 형식(3곡)으로 기획을 맞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중점공연에는 전복과 불어블문학과 학생의 독창과 락밴드공연이 있었다.

독문과 학술제 열려

다양한 행사 가져

독어독문학과 학생회(회장:장용성 3)에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예매하는 중점행사로 제8회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학생회내 및 연극 등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4일은 독일어인 '블터'의 시인과 세계 각국에서 바준주교(전북대 독어교육학) '하이네크'란 시에 대해 강연을 하였고 독어독문학과 포크가 등 여러가지 공연이 있었다. 둘째날인 5일은 인문대 세미나에서 독일 영화의 '베를린'의 시를 상영했으며 마지막 행사로 '안드라'라는 제목으로 제7회 연극공연을 했다. '안드라'는 독일인 안스 프란체 작곡으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극이다.

전학대회... 정족수미달로 무산

오는 9일 다시 소집하기로

지난 6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제3차 전학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중앙운영위 위원들 총 30여명만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등 4가지 안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에서 제출한 안건은 상반기 사업감사 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 학문부와 체육안마방, 선거관리위원 선출, 총대외의 해체에 따른 1천3백만원의 예산 처리안 등이었다.

특히 이날은 총대에선 대한 구제책 배부와 10월말부터 시작되는 학생회 선거의 선관위를 신장할 방침이었다.

이번 전학대회가 공회로 그대해 김재은 총학생회장은 "회수들을 대표해 많은 사업들을 맡기 책임자 할 사람들이 전학대회의 위임받기 때문에 다음 전학대회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부의 위임을 다시 한번 신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총학생회는 특약안건으로 신장한 연세 사태와 관련한 한총련 반일 및 학생자활동 규제 및 강방정책에 따른 반대를 위한 성명서 오는 9일 발표하기로 했다.

블문과 학술제 열려

프랑스 문화 소개

불어블문학과 학생회(회장:오영대 31)에서는 제16회 학술제 'ECHO DE PARIS(파리의 메아리)'를 지난 6일 예매하는 중점행사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블문인이 하나하나씩의 취지와는 프랑스의 민요와 상술, 사냥, 합창 등을 내용으로 하며 프랑스의 문화와 소개하는 형식(3곡)으로 기획을 맞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중점공연에는 전복과 불어블문학과 학생의 독창과 락밴드공연이 있었다.

독문과 학술제 열려

다양한 행사 가져

독어독문학과 학생회(회장:장용성 3)에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예매하는 중점행사로 제8회 학술제를 개최하였다.

학생회내 및 연극 등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4일은 독일어인 '블터'의 시인과 세계 각국에서 바준주교(전북대 독어교육학) '하이네크'란 시에 대해 강연을 하였고 독어독문학과 포크가 등 여러가지 공연이 있었다. 둘째날인 5일은 인문대 세미나에서 독일 영화의 '베를린'의 시를 상영했으며 마지막 행사로 '안드라'라는 제목으로 제7회 연극공연을 했다. '안드라'는 독일인 안스 프란체 작곡으로 히틀러의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극이다.

돌려보는 세상

국가보안법과 헌법이 명시된 자유의 차이점

한총련 국내를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 통신 이디터를 압수수색 하고 폐쇄한 최근의 검찰수사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이는 한총련이 통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투쟁지침을 전달하고 있으며 내란에 이적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하게 된다는 비뚤한 것으로 통신내용의 이적성 여부와 별개로 해당, 통신수단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와 한 국민 권 "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명시해 놓은 법, 국가보안법은 집 권을의 마를 먹는데로 쉽게 표현의 수단을 통신을 차단하는 법이 나 도대체 어느 법에 정당한지 해 봐야 할..."

모순의 용자

지난 3일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 제2회 개헌특위에 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은 반국가단체 창강 조처, 이학연등 구성, 이학연등 재해, 불교도등 국가 보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헌초기에는 안기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이제 이미 밀기가 되나 안기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내놓았는 03세 / 03세의 개혁은 모두 도 로아바라할까요?

정계구리 정무(?)

군산 일바다에 중국산 식품쌀 3천톤이 수입제한선을 넘기고 있다는 데.

할, 총수입량의 14%인 1만톤은 이미 도해로 전복과 총남반에 보관할 예정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의 우무과이 라 운도와 관련한 식품쌀 수입개방은 없다든지 하는 방침과는 너무도 다른 상상에 농민들은 이연실 새하고 있다고.

이와 한 총학생회 "대통령 아저씨 / 말하고 행동하고 반대 나 국가보안법도 문 열려있지 않네요?"

오메로 거나

전원등 29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한, 불행, 폭력 시위에 가담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합형의 재을을 재한 하겠다"는 '한총련 사태에 대한 결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는데.

하지만 이는 이번 한총련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일시적인 형사처벌과 학교로부터의 중징계, 거기에다 그들의 장래 걱정까지 재하는 거혹한 하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한 학생회 "죽도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면 문과도 하는데 이전 정권, 학교, 경제계 할것 없이 한꺼번에 몰아세우니 우리는 오메로 가야 할 지"

학교 홍보비디오 시영회 가져

신입생 유치·취업보도 활용

학교 홍보비디오 시영회가 지난 6일 멀티미디어실에서 총장이하 교무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 비디오는 학교의 대내외적인 홍보와 학교구성원의 애교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기획실(상장:이태성) 담당으로 작년 10월부터 제작에 착수 1년의 과정을 거쳐 9월말 마무리 한 것이다.

이 홍보비디오는 대학의 연합소개와 우리대학교의 우수성, 세계화의 의지 부각, 젊고 패기있는 대학 이미지, 기독교 대학으로의 특성 부각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은 15분 가량이면 2분 20초, 영문 50%로 제작됐고, 신입생 유치 및 취업보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 비디오는 각 지역 고등학교와 지역개발 대학, 대학관계자 및 내방객에게 비디오를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홍보비디오 시영회 모습



따그미 쏨녕 (16)



상영을 해 강도에 높고



커리큘럼 50%나 높였네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열려

교직원·학생... 2백여명 참가

'중소기업 골주채 박람회'가 지난 8일 27일부터 28일까지 관주 송원문화회관 이랜드홀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의 문을 넓혀 주고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를 선 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 전담·복지사 주도로 개최된 이번 채용 박람회는 전담·복의 1백20여개 회사들이 모여서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신입사원을 원사접수 및 면접시도

대학문화신문 연구구독 권택민

"젊은이는 당당한 삶의 개척자"

대학생의 진로와 취업, 그리고 건강한 대학원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원 모두의 열람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대학원의 고민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 방향을 찾고, 대학원의 열망과 열정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대는 다감이고 마음 속에 그려진 시공간에는 재가이듯, 자신만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근성있게 노력하는 젊음들이 대학문화신문은 함께하겠습니다.

읽고들 오십시오.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차제공 받습니다.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특별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원하고 4~5일 분량으로 보내주시면요. 여건은은 독자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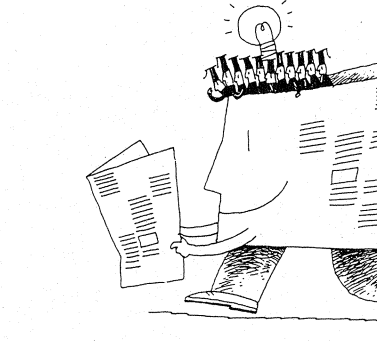
●기사 소문나 기사가이름을 제공해 주십시오.

대학문화신문은 고정간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기사 또는 기주에게 대한 기획이름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등의 금중을 불어드립니다.

전남도 원정배를 관하여는 공문서 사방에 대해서 연락주십시오.

취소수으로 편집에 반영될까 아울러 도움이 될 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진로와 취업, 그리고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신청서

연간구독기간	1996년 ()월부터 1997년 ()월까지
구독자	주소
연간구독	주소
신청여부는 분	()대학 ()대학 ()학과
연락처	
주소	
신분별	주소
보살 분	연락처
구독료	()만원정금
납부명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료는 10,000원입니다.

위탁인이 대학문화신문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1996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귀중

*연간구독을 신청할 시 본 위 내용을 기재하여 팩스(02-7146)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구독자에게는 통풍으로 우편발송을 해드립니다.

*연간구독료는 아래 은행 계좌로 구독료 입금하신 후 독자들에게 (전화 741-166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817-01-0250-883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계좌입금 128-20-12197 예금주 대학문화신문

*연간구독료는 대학문화신문 독자관리부 귀중

신용회사 통풍은 우편으로 88-741-1661(전화) 1088

전화 741-1661, 팩스 762-1749

대학문화신문
The University Culture Press
서울 중구 을지로 98-78(4번지 107)

대학문화신문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진로와 취업, 그리고 밝고 건강한 대학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사제공 : 02762-1366 / 전화관: 남유리님 / 팩스: UCPress
*구독료 및 광고 문의 : 02741-1661-2, FAX : 762-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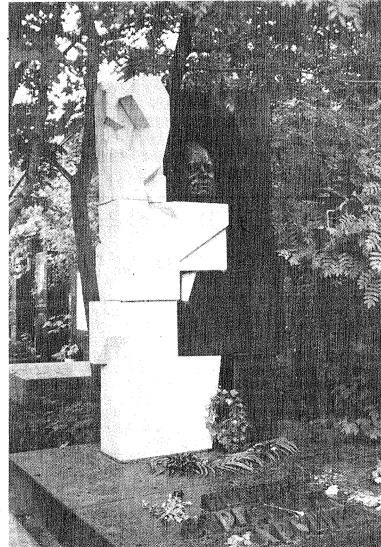
여행기 ◇러시아 여행유감②

조각공원과도 같은 음악가와 문인들의 묘

지열택 교목의 '러시아 방문 여행기'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위은이 합필)

레닌의 묘

소련 공산정권 때에도 많이 등장했던 장소가 붉은 광장이다. 1987년도에는 서쪽의 십대 투스트라라는 소년이 경비병을 따고 레닌의 묘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붉은 광장에 도착해서 술안 피자를 불러 앉았다. 소련의 방공망이 흔들려서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말이다. 아울러 앉는다는 축이 아니라 열렸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유서깊은 이 장소를 방문하였고, 많은 관광객들이 러시아에 오면 빠뜨리지 않고 찾는 곳이라 유망한 것은 중앙 광장에 레닌의 묘가 아니라 보존원칙 참배객들의 예상을 받고 있다. 1924년에 적색 광장으로 만들어진 이 묘는 보통 교살 투개 정도의 크기와 작은 건물에 안착되어 있다. 공산정권 당시에는 붉은 서서 묘지간을 걸어서 참배하였으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부활한 유리관에 진공상태로 수습된 묘본은 피어 있는 시체는 붉은 전기 조명등으로 비추고 있어 저들이라도 금세 알아차릴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지그재그 채굴에 나부진 그 끝에, 1917년 10월 공산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연방을 탄생시킨 그 정쟁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역사의 이그러니를 후회라 설명할 수가 없었다.



('호르시호프' 전 공산당 서기장의 묘)

과 남쪽에도 함께 있다. 우리 학교 수 운동장 보다 작으면 작았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공묘묘지이다. 물론 비까지 내려 여름이지만 조개를 낚지 마는 소산할 정도의 날씨였다. 유명한 사람들의 묘지라는 데 표기는 별과 1명 남짓도 안된 것으로 묘지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한데 붙어 있는 묘지도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이 있다면 묘비와 함께 고인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흉상조각상이 있어 조각 공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묘지이다. 파나

붉은 빛방울이 쏟아져 지열택 틈을 주지 않았다. 물리는 듯 발길들을 재촉하면서 지나가는 데 우리의 발길을 잡아 멈추는 곳이 하나 있었다. 호르시호프 전 공산당 서기장의 묘이다. 황달이 바늘 밑에서 사인을 한장 찍었다. 이 이유는 호르시호프가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 총회에서 연설할 때 주위를 한 바퀴를 두드려서 사자루를 도한 면 모습이 생각나서였다. 사람이 죽으면 이 한평 남짓한 땅에 묻히는 인생인데 반세기 이상을 공산, 민주주의의 이념을 논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아직도 남북방이 이념의 대립을 하며 세계유일의 분단국가가 남아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찌 한심하게까지 느껴졌다.

따치어나 김 여사

따치어나 김 여사는 경주 김씨라고 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활달하면서도 구경 없는 태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호감주기에 충분하였다. 고대인 2세로 어린 한사람이었는데 어색함이 남아있어 추위를 기어올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녀의 적극적인 성격과 자신에 넘치는 삶의 태도는 무척이나 호감이 갔다. 시내 광판이나 안내를 맡아 다닌다 할 경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은 볼품만치도 없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같아 보였다. 화장실 문제만 해도 그렇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문제가 심각하다. 공용변소가 있다고 해도 돈을 내야 한다. 전동이 없으면 사물을 들고 다니면서 생리대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난날 무릎을 잘못 먹었을까 나는 배탈이 나서 황급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아무리 일찍이도 화장실이 없었다. 우리 일행의 안내를 받았던 안내원에게 화장실에 갈 때 가져갈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약간의 화장실의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고 조금만 더 지켜보면 바지에 실례를 해야 할 판이었다.

바분이 화장실에서 따치어나 김 여사가 왔다. 이 여인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여사는 눈치를 찻지 않아 가지고 있던 어떤 가방을 꺼내서라도 찾아서 해결해주는 열의를 보여 주었다. 할 고마운 분이냐. 몇 일 동안 함께 있는 동안 그의 솔직한 내색과 열의와 교유할 만 할 때에도 그가 받은 교육 탓일까, 모스크바에서 직접과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칠 정도의 인텔리였다. 그리고 소련 정권 당시에는 공산 당원으로서 지열택과 수장을 지닌 정권의 소유자였다. 이 여인이 천천히 예수님을 믿고 한국인이 설립한 신학교에서 교무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니 그녀의 역사에 흥미가 되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어 기독교는 알고 있었으나 한국에 왔다가 왜 기독교가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첫 열매로 일어나 감사를 드린다. 그 후 따치어나 김 여사는 선교의 편인지 기쁨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에게 관심되는 것은 어떻게 공산 당원이 됐느냐 하는 점이었다. 너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현지 러시아인들로는 그 정도도 많이 한 공산 당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때에서 약탈 당하였다고 육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텔리라고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왜 공산당에 입당했느냐는 물림들의 질문에 한 가지는 높은 교육수준을 위한 학비의 필수 과정 정도만 생각 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한국은 아직 분단되어 있다. 이북의 볼 수 공산 당원이 약 2백만명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을 적이 있다. 만일 한국이 통일되면 이들은 할까? 무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따치어나 김 여사가 예수를 믿어 변화된 모습과 통일 후의 한국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상상해 본다. 그리고 나는 이 말을 쓰면서 따치어나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지열택(국제대학 원장)

시진실

임상목(사회복지사)

들은 싫다. 바위가 좋다.

산속의 바위는 싫다. 바위가 좋다.

한 가지에 맞서는 바위는 싫다. 파도, 바람 두가지에 맞서는 바위가 좋다. 강한 바위가 좋다.

어느때 부러인가 바위는 그냥 그 곳을 지키며 서 있었다.

깨 아무리 강한 풍파가 있어도 그냥 그 곳에서 있었다.

여러시때, 여러 세상을 살며 그냥 그 곳에서 있었다.

심장을 묶어버릴 것 같은 파도에도 삼갈을 찢어 놓을 것 같은 바람에도 그냥 그 곳을 지키며 서 있었다.

100년도 못사는 나 바위되어 살고 싶다. 그냥 그 곳을 지키며 살고 싶다.

작은애기 한권의 책

양서가 주는 감동과 교훈

가을은 정성이 안으로 살피며 자아를 돌아보게 하는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맑아 심정에는 "천고백비"의 가을 편을 펼칠 때가 한여름 한여름에 좋은 계절이라는 "동화기"가 이것을 증명해준다. 따라서 가을 편을 제일 먼저 따르는 것이 독서이다. 한권의 책이 주는 마음의 양식은 젊은이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무슨 책을 읽고 있으며 어떤 책을 고르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천천히 눈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사전에 풍수처럼 쏟아지는 장지나 무분별한 충미와 주의 앞만 에둘러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함께 함께 만들며 생각하지 않고 강경에 따라 행동해도 무위할지도 모른다.

이것과 같은 책을 읽어 시간을 소비하기 보다는 고전을 읽는 것이 천천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수세기동안 그 책이 지닌 내적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게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시키는 책이다. 고전을 통하여 우리는 훌륭한 상인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자신의 내적가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읽으면서 어떠한 책을 읽었느냐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천천히 이 책을 통하여 자신에게 도움을 줄 한권의 책을 읽었으면 한다.

이정수(이부림 3)

다음제목: 좋은 친구들

한권의 책과 좋은 시간들...

우리는 예전부터 가을이 오면 으레 친해졌고 노닐며 있고, 그런 노닐 때면인지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이 친해졌다. 봄에는 웅장한 분주함에, 여름은 무더위로 인해 그걸 끝 내기를 저를 열등(?)으로 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특히나 나무는 핑계로 친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이 3학년인 내가 그러한 계절을 선택해가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친해지기 아닌 듯 싶다. 여름 반박론인 뜨거운 태양과 달콤한 사과 열매를 뜻하는 인생의 정열에 의해, 지금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잊고 싶어 한다.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와 구별과 구별과 같은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 매일 만나고 있는 내 예전 친구 / 바로 책! / 책을 내가 이겨 주어야 할 모두가 책과 친하게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친분을 나누는 모습은 언제나, 어디서든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것과 더불어 많은 평범한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여러분들도 어떻게 책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떤가?

함 / 책 읽는다는 것보다 따뜻한 독서자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중택(지역계 3)

다음제목: 좋은 친구들

원고매수: 3대

마감일: 9월 12일 (목)

전주대신문 지령 500호 기념

제20회 백마 학술문학상 현상공모

그동안 매년 5월중에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백마학술 문학상이 올해는 전주대 신문 지령 500호 기념을 맞아 그 격을 높여 전국적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마감은 95년 10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집부문

시(3편 이상)

단편소설(원고지 기준 70매 내외)

수필(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논문(원고지 기준 70매 내외)

※논문주제 -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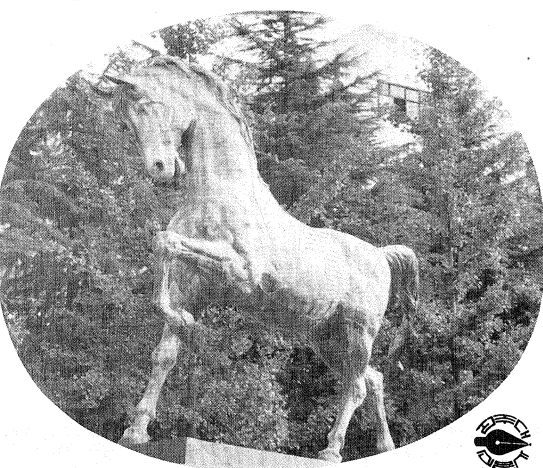
• 교육시장 개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민족교육 살리는 방향

• 기타 다른 주제도 가능

◆특히 올해는 지령 500호 기획사업으로 그동안 당선되었던 작품을 엮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의: 전주대 신문사 ☎ 220-2442



고향변주곡 I - 귀향

오교정 (동문·국어과 85학번)

세월이 갈수록. 이름을 거꾸로 파르스름한 바람이 출렁인다. 방향의 언저리를 돌아오는 바람에. 도미 날아 있는 축축한 어둠. 도시 구석에. 제그리지 향로나 쓰레기 더미로 떠돌던 생활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지만. 헤트미의 지니 보리밭은. 더욱 푸르기로 귀향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기다림이 평범한 살림들로 아픔을 깨우다. 서로 걸려 넘어진. 평범한 바람이 부끄러워. 현실로 돌아온 꿈이. 믿지 않는듯. 꿈이 아니길 바라는 듯. 믿지 않는 듯. 맑은 햇살로 감싸주신다. 공들. 허기진 의식 속으로 내려앉은 사람의 하늘이여.

(제12회 백마학술·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전주대신문사